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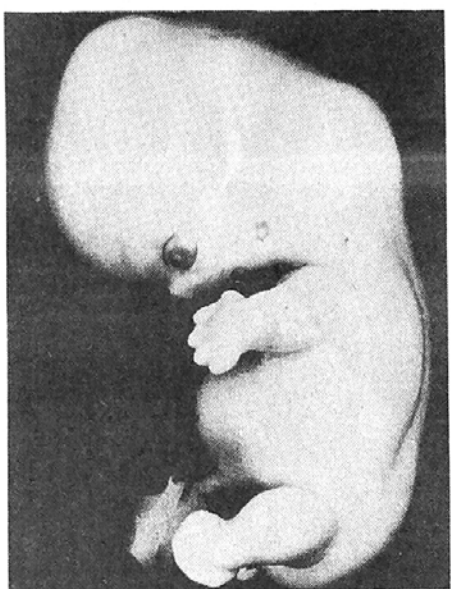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 * *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불교는 어떤 근거에서 낙태행위를 반대하는가. 낙태에 대한 불교학적 연구는 그간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만큼 낙태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제시한 종교가 없다

는게 관련학자들의 의견이다. <어둠의 빛으로>에 수록된 학자들의 낙태와 관련한 연구 논문들은 2년 이상씩의 울두끝에 작성된 것이 다.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법공양 페이지



◇ 인간은 태속에서 49 일만에 이미 인간의 기능과 의식을 갖추게 된다.

태아의 사망과 천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사망한 사람이다. 이들은 바깥 세상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강렬한 생의 희망을 포기하고 한을 품은 채 사라진 영혼들이다. 그러나 부모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을 바로 관찰하지 못하고 태아의 사망을 슬퍼하지도 않고 태아의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천도의 식도 지내주지 않는다. 이기심 때문이기도 하며 내면의 진리와 생명관을 갖지 못한 무지의 결과이다.

불교의 생명관에 의하면 태아는 어머니 태안에 물방울의 형태로 태어날 때부터 인격체로 간주된다. 태아가 낙태를 당하면 부모를 원망하며 떠돌아다니는 원혼이 된다. 그러

를 다섯 또는 여덟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태아를 인격체로 간주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태아를 처음부터 인격체로 간주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부에게 음식과 물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살생을 범하는 것이다. 신라의 고승인 둔촌법사가 유가 기본(瑜伽起論)에 남긴 기록을 보면 액체의 태아나 여러 형태의 태아를 태태(胎胎)케 하면 중대한 살생을 범한다고 되어 있다. 태태는 낙태의 뜻과 같은 것으로서, 태아가 의지하고 있는 태를 떨어지게 함을 의미한다. 누구라도 이 죄를 지으면 바라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며, 바라이라는 죄를 지으면 아버지에게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아무리 미세한 태아라 할지라도 생에 대한 애착이 있고 감정이 있고 본별력이 있다. 따라서 낙태된 태아는 부모를 원망하는 원혼이 되는 확률이 많다. 그 태아의 영혼은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보다 더욱 원한이 크고 생에 대한 애착도 많다. 만약 태아를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낙태하게 되면 그 태아의 영혼은 우주공간의 원혼이 되어 내세의 몸을 받기가 어렵게도 된다. 이승의 짧은 생애에 대하여 애착을 갖기 때문에 이승으로 가서 태어날 인연을 쉽게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혼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주고 왕생극락을 빌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불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천도를 기다리는 영혼이 많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천도 재를 행한다. 천도의식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은 극락 세계와 좋은 세계에 가서 출생할 수 있

'불설입태장회'에 나타난 태아의 비밀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겁비라성(劫比羅城)의 다근수원(多根樹園)에 계셨다. 때에 부처님의 동생이 있었으니 이들은 난타(難陀)라 하였다. 황금빛갈의 몸에 삼십호상(三十好相)을 갖추었으나, 키는 부처님보다 작았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앉아 있는 대중을 둘러보며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중요한 법문(法門)이 있으니, 처음으로 중간도 끝도 다 훌륭하고, 글과 뜻이 교묘(巧妙)하고, 팔만四千의 법문을 배웠는데도, 여섯·일곱번째 칠일 되면 팔 다리 손 발 생겨나

서 세 가지 뒤바뀐 생각을 일으킨다. 그 세 가지는 더럽다는 생각, 냄새가 난다는 생각, 어둠다는 생각이니 일분(一分)에 의해 설한 것이니라.

난타야, 서른여덟번째 칠일에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남화(藍花)라는 바라이 불어와서 태아의 몸을 굴러 아래로 향하게 하고, 태아의 두 팔도 앞으로 길게 펴게 하여 산문(産門)을 향해서 가게 한다. 또 휘하(翹下)라는 바라이 불어와서 태아의 몸에 부딪히면 태아의 머리는 아래로 향하고, 두 다리는 위로 뻗어 치면서 산문을 나오려는 것이다...

현명근 <동국대 한국불교 편찬실>

미세한 태아, 감정·분별력 있어 낙태하면 부모에 원한 가져 천도재 봉행 극락왕생 축원...원혼은 생사의 무상 깨달아

므로 낙태의 경첩이 있는 부모들은 이들 영혼을 위한 천도의식을 지내 주어야 하나 보이지 않는 태아의 영혼을 경시하여 천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운회사상과 인과사상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부 가운데 태아가 어떤 부부로부터 삼아 태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운회사상을 가르쳐 주었다. 소승불교에서는 중생들의 운회과정 중유(中有),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의 네 가지로 나눈 사유(四有)학설로 설명한다. 중유(中有)는 전생에 어떤 중생이 죽은 뒤로부터 다음의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명체를 뜻한다. 생유(生有)는 전생의 영혼이 금생의 부모를 만나 태안에 출생한 것을 뜻한다. 본유(本有)는 영혼이 모태에 태어난 뒤부터 수명을 다하여 죽는 순간까지의 생존기간을 뜻한다. 사유(死有)는 인간이 살다가 사망하는 참나를 말한다.

이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영혼인 중유(中有)는 공중에서 부모의 인연을 만나서 출생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태아의 전생 업력(業力)이 출생에 영향을 미쳐서 업력이 비슷한 부모를 선택하게 된다. 전생의 영혼인 중유는 전생에 지은 업력에 의하여 출생처를 정하여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과보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전생의 업력은 인(因)이 되고 부모는 연(緣)이 되어 생유라는 결생(結生)을 한다. 태아의 성장 과정은 팔위설(八位說)과 오위설(五位說)로 설명된다. 이는 태아가 모태에서 자라는 동안에 오장육부와 눈, 코, 귀, 입 등 인간의 형태를 갖추어 태어나기까지의 기간



◇ 낙태의 방식은 불자들이 앞서야 할 계율실천이기도 하다. 시집은 낙태아의 영가천도를 위한 의식.

사람의 탄생과 태교

아기를 낳아 기르는 일은 이 지구 상의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자연적으로 행하고 있는 본능이다. 모든 생물의 본능인 이 종족의 계승행위는 자웅(雌雄)의 교합과 임신, 그리고 출산·양육으로 이루어지는 생물본연의 일이며 사람 역시 이러한 임신(妊娠)행위들은 원시 시대로부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인생과정으로 여겨졌다. 동양문화의 배경에서 발달된 풍양의학의 가장 오랜 원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의 결합으로 부모의 신명을 이어받아 탄생하는 것이며, 그 신명에 따라 혈과 기가 화합하게 되고 영(靈)과 위(衛)가 조화되어 오장(五臟)이 자리잡히고, 근골과 기육이 구성되는 것이며, 호흡과 음식과

행동 등 모든 생명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사람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 동양의 산어편은 건전한 사람을 탄생케 하기 위하여 자연섭리를 존중하고 우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로서의 임무와 노력을 다하

모체의 혈액이 하는 것이고, 태아가 특특하게 보호되는 것은 모체의 기와 혈이 충만하고 조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 임부의 모체와 태아는 심신이 연

임부가 몸안에 있는 태아를 위하여 몸과 마음의 수양을 모범하여 태아의 인성(人性)을 함양시키는 태내교육이 바로 태교다. 태교에서 임직이 태교가 성행되

고 특히 마음의 발달이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온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성(性)은 자연섭리에 의한 것이지만 그 기질(氣質)은 부모가 주는 것이다. 그러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혈 결합 오장·근골·기육 등 구성

는데 있었으며, 특히 양친(兩親)과 자식사이의 유전사상에서 정신적 자질형성에 역점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임신이 되면 누구나 태아를 잘 길러서 건강한 자식을 낳게 하려는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태아가 충실하게 성장되는 것은

백속 10개월이 태어난후 10년보다 중요 임부는 '心身一如'로 계율지켜야

었던 것은 동양에서는 인체에 대한 관심이 육체의 발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장과 발육도 같이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사상을 기초로 해왔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 함께 탄생되는 것이고 양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언제나 일치되어야 하

로 태어난 후에 10년을 가르치는 것이 임부가 백속에서 10개월 기르는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모는 태교라는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태아에게 사람으로서의 정신적 바탕을 조성하기 위해 협해야 한다. 이종형 <동국대 병태동향병원장>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넛다비드

전화: 551-8474~5
우체국: 013805-0016528
국민은행: 067-0170-091

바람결에 서서 길을 묻는 여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부처님의 메시지

온세상이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방법! 겸손한 부자가 되는 비결!

석·준·의·록·소·리·에·귀·기·울·여·보·심·시·오

부처님과 여성들

기구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새롭게 비구니로 태어난 여인들의 소실같은 삶과 구도의 이야기 여인들의 다친 가슴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석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안에 진실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법과 참다운 부자가 되는 비결.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사바세계를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갈피 335면 / 6,000원 / 신국판

최초의 여성불교 허큐에타리
태리가타 푼타차리타 등경전 속의 여성실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동 2동 320 개명빌딩
문의: 5290140-5 팩스 5792312